‘타잔의 줄타기’ 방식의 신앙

(시편 54:1~7)

1.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2.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3.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4.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5.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오늘 말씀 중심으로 <‘타잔의 줄타기’ 방식의 신앙>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타잔의 줄타기’ 방식의 신앙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타잔은 두 개의 트레이드마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아아~ ’라는 소리를 지르면 동물들이 따릅니다. 그리고 넝쿨을 타고 빠르게 정글 속을 움직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일상을 신앙으로 사는 것은 타잔의 줄타기 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이전 말씀에서 우리의 삶은 삼각관계 안에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육체로 관계하는 세상의 대상과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감각으로는 느낄 수 없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와 세상과 하나님 이 삼각관계가 삶의 현장이 됩니다. 이 중에서 변화는 세상 부분에서 일어납니다. 나와 하나님의 두 축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세상이라는 축의 내용이 다양하게 변화하며 삼각관계의 삶의 현장을 바꾸도록 합니다. 가정에 있다면 나와 하나님과 가족들이 삼각관계를 이룹니다. 직장에 가면 나와 하나님과 직장에서의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세상 부분에서의 변화가 끊임없이 일어나며 다양한 삼각관계가 만들어 집니다.

지속적으로 변하는 삼각관계를 옮겨 타며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타잔의 줄타기와 같습니다. 타잔이 밀림 속에서 드리워진 넝쿨을 붙잡고 이동하는 것처럼 삼각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에 있는 우리와 관계하시기 위하여 이름을 허락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무심코 성경을 읽어왔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계속해서 반복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땅에는 그 이름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자면 나와 세상과 하나님의 이름이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은 언제나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와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삼각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이 됩니다.
민담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나오는 동아줄을 아실 것입니다. 호랑이가 엄마를 잡아먹고 엄마의 옷을 입고 오누이까지 잡아먹으려고 하였지만, 오누이는 용케 알고서 뒷문으로 빠져나가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와서 오누이를 끌어올려 해와 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것을 본 호랑이도 똑같이 하늘을 향해 줄을 내려 달라고 기도하자 줄이 하나 내려왔는데, 그것은 썩은 동아줄이라서 호랑이는 줄을 타고 올라가다 메밀밭에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이름과 존재는 동아줄처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동아줄의 손잡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삼각관계에서 직접 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뿐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은 허망한 이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동아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의 삼각관계에서 그 이름을 제대로 붙잡을 수 있을까요?
세상보다 먼저 마음이 그 이름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은 오감으로 느끼는 세상일들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보다 먼저 반응합니다. 이렇게 마음이 세상 것에 먼저 반응하고 끌어들인 상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컬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성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세상에 대해 반응한 마음이 죽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의미를 완성시키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먼저 반응하는 내가 죽었음을 고백함으로서 하나님의 존재로 연결되는 이름을 붙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가정에 있을 때에 가족들에게 반응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가서는 또 직장 일에 반응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마치 타잔이 밀림에서 넝쿨을 붙잡고 옮겨 다니는 모습과 닮았습니다. 가정에 있을 때에는 가정에 내려온 동아줄을 붙잡고 있고, 직장에 가서는 그곳에 내려온 동아줄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타잔을 보면 아시겠지만 타잔이 넝쿨을 붙잡고 이동할 때에는 발은 항상 땅에서 떨어져서 공중에 머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삼각관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동아줄을 제대로 붙잡으면 마음의 발은 세상에서 떨어집니다. 그럴 때 남게 된 세상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뜻과 계

획으로 통치하시고 만져 가실 것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BC.1020~1010년 사이로 추정됩니다.
이 시기는 다윗이 무려 십년 동안을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입니다. 어느 날 다윗이 십 광야에 숨어있을 때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사울 왕에게 밀고함으로서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그 일을 두고 지어진 시입니다.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합니다. 다윗의 도망자 시절을 살펴보면 한 마디로 이 땅에서 한 조각의 마음도 붙일 곳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맨 먼저 피신해서 놉 땅에 갔을 때에 대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뒤에는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로 피신하고 미친 척을 하여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후에는 또 유다 땅의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부모님과 추종하던 사백 명을 이끌고 모압 땅으로 피신합니다. 그곳에서 선지자 갓을 통해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듣고 헤렛 수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의 침공을 받아 타작마당이 약탈당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물은 후에 사백 명을 이끌고 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냅니다. 그런데 그일라 주민들은 다윗을 배반하여 사울에게 밀고합니다. 다윗은 다시 피신하여 십 광야에 이르게 됩니다. 십 광야의 주민들은 다윗의 지파인 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무려 세 차례나 사울에게 다윗을 밀고합니다. 다윗은 선지자의 지시를 따라서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의 땅으로 들어왔지만 이처럼 머물 곳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을 보면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마음 놓고 머물 곳을 한 뼘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사울에게 잡히도록 하시지도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땅에 마음을 붙일 가능성을 원천봉쇄하셨으므로 다윗으로서는 마음의 발을 땅에서 떨어뜨리고 공중에 매달려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공중에 매달린 상태가 바로 삼각관계에서 하나님과 관계할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반대로 땅에 발을 붙이는 것은 삼각관계에서 세상에 먼저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존재의 순서대로 반응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에 어떤 급박한 일이 일어났더라도 하나님보다 먼저 일수는 없습니다. 여호사밧 왕이나 히스기야 왕의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외적의 침입으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을 때에도 그 사건보다 먼저 계셨던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먼저 반응하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름은 하늘에서 드리워진 동아줄의 손잡이 부분입니다. 그 이름을 붙잡는 한 땅에서 발을 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을 훈련시키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는 다윗을 땅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장차 왕이 되고 그 자리에서 얻게 될 권력과 세상의 가치들에 대해 하나님은 언제나 삼각관계로 계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훈련하고 숙지함으로서 세상에 마음을 붙이지 않고 하나님께 마음 두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럴 때에 오히려 다윗이 다스려야할 세상의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삼각관계에서 세상은 다윗의 마음에서는 버린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통시하시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붙잡기 훈련을 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십년간 다윗에게 이 땅에서 마음 붙일 곳을 한 뼘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본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라고 하였습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가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붙잡고 구원을 얻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존재와 연결된 동아줄을 붙잡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삼각관계에서 세상에 먼저 발붙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게 여김을 받지 못하고 망령되이 일컫게 됩니다. 또한 실제로 하나님과의 만남도 이루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복음 신앙은 내세 지향적이 아닙니다. 사후의 세계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동안에 하늘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내세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 받는 것이고, 삶의 과정에서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현세 도피적인 신앙이냐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보여주었던 사울과 맞서 싸우지 않고 계속 도피하던 모습이 우리에게는 현세 도피적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에 대해서 앙갚음을 해주실 것을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주의 이름'이라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원수에 대한 이야기도 삼각관계 안에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다윗과 사울과 하나님이 있습니다. 다윗도 사람인지라 사울 왕의 추격을 받을 때마다 마음은 위기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시온과 성전에 대해 노래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을 그리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기 위해서는 그 이름을 두신 성전의 구조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상번제가 드려질 때에 사울 왕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죽입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깨끗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나면 남겨진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과녁으로 삼으십니다. 그것을 원수에 대한 기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단순히 내

편이 아닌 자들을 멸절시켜 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삼각관계에서 내가 세상에 대해 발 떼고 하나님께로 옮겨가면 세상은 내 마음에서 버려집니다. 이렇게 버려진 상황과 대상들을 과녁삼아 하나님의 뜻이 적중합니다. 삼각관계로 등진 세상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채워져서 세상에 대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게 되었을 때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은 마음은 반드시 세상을 통해서만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 세상 부분이 설령 원수일지라도 그 원수를 해결함으로 만족하려 할 것이고, 가족이라면 가족이 잘됨을 통해서 만족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배반이고 등 돌림이 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으로 마음이 만족하게 되면 세상에 대해서는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된다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남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십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키셨던 것입니다.

삼각관계에서 땅에 있는 세상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을 떼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공중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삼각관계의 내용물이 바뀔 때마다 타잔이 넝쿨을 붙잡고 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동아줄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임으로서 붙잡을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마음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상번제와 함께 죽음으로서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십년 간 쫓기게 하시며 어느 곳에도 발붙일 곳이 없도록 하신 의도대로 우리는 이 땅 어느 곳에도 마음을 붙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타잔이 발을 붙이지 않고 옮겨 다니는 것처럼, 삼각관계의 대상이 바뀔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의 동아줄을 붙잡고 그 끝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해야 합니다. 원수가 쫓아올 때에조차 하나님으로 만족하기를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가 등진 세상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해 바람이 없는 우리의 마음을 이용하셔서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원수에 대한 앙갚음의 기도를 우리가 세상을 마음에 담은 채로 하나님께 탄원하고 간구하는 식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이유는 '주의 이름'이라는 말이 세 번씩이나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성전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잡기 위해서는 먼저 상번제를 통해서 원수에 반응하는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타잔의 줄타기 방식의 신앙을 통해서 삼각관계의 세상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적중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복지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십자가 생활화를 통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드리워진 동아줄의 손잡이 부분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음으로서 어떠한 삼각관계로 바뀌든지 그 삼각관계가 하나님의 통치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타잔처럼 바뀌는 삼각관계를 줄 타고 넘어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